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주 전시장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는 샤머니즘 등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책과 장미를 선물합니다”

문체부, 23일 ‘세계 책의 날’ 책드림행사

“세계 책의 날” 4월 23일 책과 장미를 받으세요. 오는 23일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의 날’과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 23일 작고한 역사 등에서 유래한다. 세계인의 독서 증진 등을 위해 1995년 유네스코에서 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4월 23일을 상징해 시민 423명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책드림 행사를 연다. 오는 9일까지 ‘세계 책의 날’ 누리집을 통해 응원 메시지와 도서를 신청하면 책과 응원엽서, 장미꽃 액자를 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책술 행사’와 ‘체험꾸러미 만들기 행사’도 진행한다.

‘책술 행사’에서는 오는 11일까지 고민과 이야기를 남긴 100명을 선정해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원편지를 선물한다. 특히 100명 중 추첨을 통해 뽑힌 10명과는 ‘1:1 소통 책 처방 생중계’를 진행한다.

‘체험꾸러미 만들기 행사’에서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423명에게 체험꾸러미를 발송한다. 나만의 독서 공책을 만들거나 책 모양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서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유튜브에서는 다채로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집콕 토크 콘서트’를 볼 수 있다. ‘제법 안전한 날들’을 주제로 남궁인 작가(12일), ‘책의 말들, 북투비의 말들’을 주제로 김겨울 작가(18일) 등이, 책 유튜브 창작자 ‘공백(진행자)’과 대담한다. 문우당서림·민음사티브이(TV)는 ‘책 만드는 사람과 책 파는 사람의 수다’를 주제로 ‘출판사×서점’ 대담(21일)을 이어간다.

23일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열리는 ‘세계 책의 날’ 기념식은 출판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책드림’을 신청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책드림’을 비롯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글 쓰기(최은영 작가)’,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김보통 작가)’ 주제의 책 콘서트도 만나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을 찾아서

### <1>비엔날레 전시관

오는 5월9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주제전과 광주정신을 탐색한 ‘GB커미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데이투데이’, 국내외 미술관을 연결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함께 만나는 행사다.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행사의 전시 공간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광주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각각의 전시장에 들렀을 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행사들을 소개해, 풍성한 즐길거리를 전한다. 각 전시장을 잇는 셔틀버스도 운영하니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섯개 전시실...1전시장 무료관람

민정기 신작·이상호·조현택 작가 전시  
전통공예기법 파시타 아바드 작품 눈길

## 한국 샤머니즘 치유 담은 ‘카트’ 여성작가들 ‘행동하는 모계문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올 행사의 메인 전시장이다.

비엔날레 본전시관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시 공간 구성이 흥미롭다. 나타샤 진발라 등 공동예술감독은 ‘지속가능한 전시’를 지향하며 가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등 색다른 전시 공간 구성을 언급했고, 베디오고 파사리노가 제안한 전시실은 작품과 커튼을 활용하는 등 색다른 디자인으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모두 다섯개의 전시실에서는 ‘산, 들, 강과의 동류의식’, ‘돌 연변이에 관해’ 등 각각의 소주제에 따라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관습과 고정 관념을 깨고 억압된 역사, 페미니즘, 샤머니즘 등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다룬 작품들과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각국의 상황을 담은 작품, 성소수자, 이민자 등 소외된 이들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티켓 구매 없이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1전시장은 이후 2·5전시장으로 이어지는 작품의 ‘프리뷰’ 역할을 하며 관람객들의 흥미를 돋운다. 북유럽 원주민 샤미족 출신인 오우티 피에스키의 ‘함께 떠오르기’와 2 전시실에서도 만나는 ‘여성 선조의 궁지의 모자’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인상적이다.

김상돈 작가는 한국의 샤머니즘, 과잉 소비, 현대 정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작품 ‘카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진도 다시래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행렬’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애도와 위기 극복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 국내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민정기 작가의 신작 ‘무등산 가단문학정 지도’와 문경원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1전시장에서 2전시장으로 올라가는 통로에는 광주에서 활동

하는 조현택 사진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주변 이웃과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포착해온 그는 전국의 석상(石像) 시장을 촬영한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2전시장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필리핀 출신 작가로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부터 대항의 목소리를 내온 페미니스트 작가 파시타 아바드의 작품은 한국의 수목화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전통 공예기법을 활용해 눈길을 끈다.

3전시장에서 만나는 광주 작가 이상호는 1980년 광주를 직접 겪었고, 이후 예술가중 최초로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 발언을 놓지 않은 예술가다. 그는 불화를 차용한 ‘권력 해부도’, ‘통일염원도’ 등을 통해 진미정적을 비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만다라 형상을 한 누빔 의상 작품을 선보인 안젤로 플레사스는 광주에 체류하며 직접 누빔공장을 방문했고 무당 도담과 협업해 샤머니즘을 통한 치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작품 ‘누스페릭 소사이어티’도 함께 전시했다.

4전시장에서는 조개껍질과 헬멧, 휴대폰을 활용한 에모 데 메데이로스의 작품 ‘하이퍼 리시버’와 무용가이자 안무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온 세실리아 벵굴리아의 대형 영상 작품 ‘댄스홀 날개, 트립틱’ 속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몸짓의 춤과 심해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 5전시장은 ‘행동하는 모계문화’를 주제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세실리아 비쿠냐 작가가 직접 제주를 찾아 해녀들의 ‘숨소리’를 녹음하고 그들의 숨터를 형상화한 작품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음성안내 오디오 서비스 ‘큐피커’를 휴대폰에 내려받아 작품별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면 효과적이다. 안네 데스쿠에서 사용법 등을 친절히 알려준다. 월요일 휴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홍매

### ‘배동신·양수아-100년의 유산’ 전 허달재 화백 ‘가지 끝 흰 것 하나’ 전 리암 길릭 ‘워크 라이프 이펙트’ 전

비엔날레전시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모두 4개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2020년은 호남 서양화단의 주요 인물인 배동신(1920~2008), 양수아(1920~1972)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였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가 낳은 천재 수채화가 배동신과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양수아가 남긴 100년의 미술사적 유산을 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두 사람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등을 만나는 ‘배동신·양수아-100년의 유산’전은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전시에서는 배동신 화백의 무등산, 누드, 정물, 자화상, 데생 등 주요 대표작과 함께 사진, 팸플릿, 영상 등을 만날 수 있

다. 또 적박한 지역에서 추상화의 맥을 이었던 양화백의 비구상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 사진, 삽화, 인터뷰 자료 등도 눈길을 끈다.

허달재 화백의 전시 ‘가지 끝 흰 것 하나’ (6월13일까지) 전에는 매화, 모란, 포도 그림을 비롯해 돌과 다기(茶器)를 소재로 한 신작 등 40여점이 나왔다. 중국 베이징 화원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최근 10여년간 중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허 화백이 광주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립미술관이 중진작가 초대전으로 기획했다.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리암 길릭의 아시아권 미술관 첫 대규모 기획전인 ‘워크 라이프 이펙트’전이 오는 6월27일까지 열린다. 1·2전시실과 미술관 로비, 복도, 유리창 등까지 확장된 전시에서는 ‘눈 속의 공장’, ‘마음의 키오스크 광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근 광주문화회관에 자리한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는 이정록 작가 초대전 ‘그 곳, 그 숨(That Place, Their Breath)’전이 오는 6월27일까지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인권교육강사 수강생 16일까지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전남인권센터와 함께 인권교육강사 수강생 3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17일까지며, 전남의 인권 특성을 반영한 기본과정과 강의력 코칭 등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개별 강의 시연과 평가과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강의 최종평가 통과시 전남도청에서 인증하는 인권강사로 위촉한다. 인권강사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단체, 각종 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서류접수 이후 지원자격 적합 여부, 강사자격 등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8일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참가는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해 신청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